

최미애 작가와 그녀의 시어머니, 인도네시아여성들이 함께 참여한 '그녀들의 연대기' 전시 모습.



# “뜨개 한땀 꿈 한땀... 그녀들의 연대기”

“여성들의 언어와 노동, 그리고... 삶 우리는 모두 예술이다.”

전시관 입구, 뜨개로 만들어진 연잎들이 천장에 흐드러지게 피어있다. 아래에서 바라본 연잎의 모습이 새롭게 다가온다. 연잎을 지나 전시관에 들어서면 뜨개로 제작된 나무가동, 심장, 가방 등이 펼쳐져 있다.

조각가 최미애(50) 작가가 뜨개를 매개로 한 작품을 선보이는 '그녀들의 연대기' 전이 오는 31일까지 광주여성가족재단 3층 전시관 허스토리(Herstory)에서 열린다. 전시와 시민 참여 프로그램, 아카이브 3개 섹션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에서는 최작가의 작품과 그녀의 시어머니 박상해 씨를 비롯한 여성들이 함께 만든 뜨개물을 활용한 설치 작품이 함께 선보인다.

인천 출신인 최작가는 홍익대 조소과를 졸업하고 남편과 독일로 유학을 떠나 슈트트가르트 국립조형예술대학에서 공부했다. 두 아이를 키우며 육아와 가사, 작업을 병행하던 최작가는 10여년 전 시간적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각적인 행위의 수공예적인 작업을 시도했다. 그 결과물이 바로 뜨개작품이 됐다.

“귀국 후 둘째를 낳고부터 독박육아가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뜨개질을 하기 시작했죠. 독일은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 공부도, 일도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어요. 근데 한국은 정 반대더라고요. 육아에만 매달리다가 실과 바늘만 있으면 장소가 어디든, 시간이 언제든 쉽게 할 수 있는 뜨개질을 하기 시작했죠. 여럿을 적 얼마, 이모가 뜨개질을 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 때는 벤치에 앉아서 뜨개질을 했고, 밤에 아이들이 잠에 들면 또 쉬지도 않고 손을 움직였습니다.”

뜨개는 육아와 가사 등으로 잃어버렸던 꿈을 찾는 여정이었으며, 누군가의 엄마, 며느리, 아내로 살아가면서 놓쳤던 자아와의 대면으로 이어졌다. 결혼 후 그룹전 등에 참여하면서 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온 최작가는 어느날 시어머니가 떠준 발매트 등을 떠올렸고, 그녀는 50년도 더 된 오래된 뜨개물을 전부 가져왔다.

최미애 작가와 시어머니 박상해씨 뜨개물에 스토리 입혀 입체적 작품으로 시민·인도네시아 여성들도 참여 31일까지 광주여성가족재단 허스토리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 박상해 씨.

재봉과 편물로 삼남매를 키우고 살림을 일궈던 시어머니의 뜨개는 그녀의 연대기 속에서 삶을 유지시켜준 위로와 치유의 매개체로 다가왔다. 아흔이 다 된 시어머니는 22살에 시집 와 8년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서울 조카네 집으로 도피하다시피 올라갔다. 팽목항원에 다니던 그는 남편이 자주 찾아오자 다시 고향으로 내려갔다. 이후 박 씨는 친정에서 송아지를 팔아 사준 편물기계를 가지고 봄, 여름에는 동네 아가씨들을 모아 편물기술을 가르쳤고, 가을, 겨울에는 옷을 떠서 팔았다. 그 편물이 한대가 금세 두 대가 되고 10대가 돼 제자들도 10명이 넘었다. 그렇게 삼남매를 키우고, 가르치고, 집도 사고, 생계를 이어갔다.

“어느 날 우리 시어머니는 왜 이렇게 열심히 뜨개를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와 시어머니가 뜬 작업물



최미애 작가

로 무언가를 해야하지 않을까 고민했다. 이후 나만의 소재(뜨개물)에 스토리가 입혀졌어요. 그 때부터 본격적으로 작품화시키려고 고민했죠. 뜨개질로 만든 것들을 입체적으로 표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런닝셔츠는 나무 밑동이 된 거예요.”

전시장에는 박 씨가 결혼 전에 떠던 이불보를 비롯해 자식들을 위해 만든 러닝셔츠로 제작한 나무밑동이 전시되었다. 또 인도네시아 여성들이 만든 뜨개물도 작품의 일부가 됐다. 최작가는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동생을 통해 형편이 어려운 여성들을 수소문했고, 그렇게 알게 된 미혼모들로부터 뜨개로 만든 연잎을 전달받아 전시장에 걸었다.

또 다른 전시작에는 지난 8월 두 차례 진행된 '가방 뜨개' 시민 참여 프로그램에 동참해준 20여 명의 여성들이 고이 간직했던 꿈과 일상이 촘촘하게 얽혀있다. 가방을 뜨는 과정 속에서 여성들은 사회적 경험에 감정을 공유하며 위로와 치유를 통해 묵은 감정을 털어냈다. 당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여성들을 상징하는 심장을 형상화 한 뜨개작품도 설치됐다. 시민 참여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성들이 제작한 뜨개가방은 전시 기간 판매되며 수익금은 미혼모 시설에 기부될 예정이다.

전시 기획자 조사라 씨는 여성들이 지나온 삶과 시대를 의미하는 '연대(年代)'와 여성들이 연결되어 함께 하는 '연대(連帶)'에 주목했다고 전했다.

최작가는 “앞으로도 여성들의 관계맺기는 계속될 것이다”며 “탄압과 이해의 노정이 반복될수록 관계가 굳건해지듯, 뜨개의 행위가 축적될수록 우리들의 서사도 견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은재 기자 ej6621@

## 백건우와 로베르트 슈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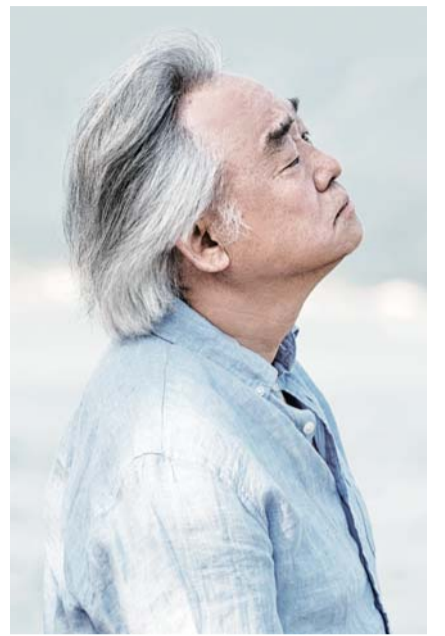
20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건반위의 구도자’ 피아니스트 백건우(사진)가 광주를 찾는다. 20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광주문화예술회관 개관 29주년을 기념하는 ‘포시즌 시리즈’에 초청된 백건우는 이번 연주회에서 슈만의 곡을 집중적으로 선보인다.

백건우는 지난 2008년 메시아를 시작으로 리스트(2011), 슈베르트(2013), 스크랴빈과 라흐마니노프(2015), 베토벤(2017), 쇼팽(2019)의 곡들을 집중 탐구하며 혼신을 다해 작곡가의 내면을 파고 들어왔다. 그가 올해 선택한 작곡가는 낭만주의 대표 작곡가 로베르트 슈만이다. 이번 연주회 타이틀도 ‘백건우와 슈만’이다. 백건우는 최근 슈만의 곡들을 모아 음반도 발매했다.

이번 공연은 슈만의 첫 번째 작품번호 ‘아베크 변주곡’으로 시작해 1854년 작곡된 그의 마지막 작품인 ‘유령 변주곡’으로 마무리된다. 그밖에 ‘세 개의 환상작품집 Op. 111’, ‘아리베스 Op. 18’, ‘새벽의 노래 Op. 133’, ‘다채로운 작품집 중 다섯 개의 소품 Op. 99’, ‘어린이의 정경 Op. 15’ 등 다채로운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개인의 자유와 감성을 존중했던 낭만주의 음악의 절정기를 살았던 슈만은 피아노라는 악기를 누구보다 사랑했고 피아노를 위한 다수의 소품들을 남겼다.

티켓은 VIP 7만원, R 5만원, S 3만원, A 1만원.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가 가능하다. 문의 062-613-8235.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경기민요 이수자 이희문과 프렐류드, 농뎡으로 구성된 '한국남자' 공연 장면.

## ‘전통과 현대의 만남’ 무등올림축제

16~18일 유튜브 생중계

깊어가는 가을, 전통과 현대의 흥겨운 만남 축제가 시작된다.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2020 무등올림 축제가 그것. 광주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무등산자락 전통문화관에서 ‘전통과 현대의 흥겨운 만남’을 주제로 펼쳐지며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축제 테이프는 광주 뿌리 한국무용단의 궁중혼례식 스토리텔링 퍼포먼스 ‘태평성대’ (오후 6시)가 꼽힌다. 개막 축하공연으로 국악 멜로디와 팝적인 요소를 가미해 조선팔 장르를 선보인 ‘서도밴드’, K팝 스타 시즌5 준우승 출신으로 드라마 OST에 참여한 싱어송라이터 안예은 공연이 진행된다.

17일(낮 12시)에는 스트릿댄스를 퓨전 국악에 접목한 빛고을댄서스의 ‘국악과 스트릿댄스의 만남’과 판소리, 국악 앙상블과 재즈 등 다른 장르가 만나 색다른 국악의 매력을 선보이는 (사)아시아민족음악교류협회의 ‘풍류, 재즈와의 만남’도 볼 수 있다. 오후 6시 30분에는 풍류달빛공연이 펼쳐진다. 무등문화제 제57호 경기

민요 이수자인 이희문과 프렐류드, 농뎡으로 이루어진 ‘한국남자’는 경기잡가 ‘제비가’와 스윙재즈의 만남을 통해 기존의 ‘제비가’를 현대적이고 생동감 있게 표현한 곡을 선보인다.

18일 오후 2시에는 청소년 무용 축제 ‘제15회 빛고을 청소년 춤 축제’가 펼쳐지며 오후 4시에는 전통연희와 스토리텔링을 결합한 전통연희예술단 굴렁쇠 페막행사 ‘해원: 바다에 꽃 피다’가 예정돼 있다.

체험 전시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오는 31일까지 숯대 미술 작품을 설치해 코로 나로 지친 시민들의 안면을 기원하며 전통과 관련된 동물, 전통악기, 전통 놀이를 소재로 한 토우 인형을 담장 기와에 설치해 배경을 만든 ‘무등올림 포토존’도 운영한다. 18일(오후 10~오후 5시)까지는 ‘전통 기와로 전하는 희망 릴레이’ 전시가 펼쳐지고, 축제장 곳곳에서는 지역 예술가와 대학생들이 만든 작품을 만날 수 있다.

한편 (사)남도기아금병장전흥회 등 5개 단체가 전통문화 계승과 국악인재 발전을 위해 마련한 전국국악대제전은 오는 24일까지 진행된다. /박성진 기자 skypark@kwangju.co.kr

## 전국무용제 대통령상, 비상무용단 ‘펜로즈의 시계’ 무대

오늘 빛고을시민문화관

지난해 대구에서 열린 제28회 전국무용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비상무용단의 작품 ‘펜로즈의 시계’가 처음으로 광주 시민에게 선을 보인다. 16일 오후 3시~6시 두차례 빛고을시민문화관.

‘무형’ 광주의 위상을 높인 ‘펜로즈의 시계’는 첫 계단과 마지막 계단이 서로 맞닿아 있어 끊임없이 계단을 오르는 데도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는 ‘펜로즈의 계단’에서 착안해 기획된 작품이다. ‘펜로즈의 시계’는 경연부문 최고단체상인 대통령상과 최우수 무용수상(장혜원·송원대대학원), 무대에상(이종영·ART VILAGE)도 함께 받았다.

박종임 송원대 공연예술학과 교수가 안무를 맡은 이번 작품은 12개의 숫자로 이뤄진 성역자 토피버퀴처럼 틈

을 내주지 않는 시계를 통해 꿈과 현실, 욕망과 이상에서 고민하는 현대인의 평범한 일상을 몸짓으로 그려냈다. 패종시계 태엽과 진자의 움직임을 형상화한 무대세트와 공간을 시각적으로 묘사한 조명, 대형 시계주에 매달려 공중을 오가는 무용수의 화려한 퍼포먼스를 통해 현대인의 고된 삶을 예술적으로 표현했다.

무용수의 움직임을 돋보이게 하는 화려하고 정교한 조명과 작품의 의도를 제대로 반영한 다채로운 무대 세트, 무용수들의 격렬한 몸짓이 어우러져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광주문화재단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상주단체 지원 사업 중 하나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2020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우수레퍼토리 공연으로 선보이게됐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

**062 673 5858 (모발모발)**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